

# 14년만의 야당 국회의장 탄생 임박...더민주 다선 5명 물밑 경쟁

## 여야 3당 원내대표 첫 회동

### “원구성 협상 등 협치” 한목소리 법사위원장은 새누리서 맡을 듯 박주선 의원 국회 부의장 거론

여야의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14년 만에 야당 국회의장이 나오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국민이 내려주신 지상 명령인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좋은 출발을 선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상호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꽃피우려면 원구성 협상부터 실현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여당대로 생산적 국회를 위해 협력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원 구성 협상은 3당 체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해질



11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3+3+3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새누리당 김광림·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정진석·국민의당 박지원·더민주 이상호 원내대표, 더민주 박완주·새누리당 김도읍·국민의당 박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전망이다. 일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 등 이른바 ‘탈당파 당선인’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 지난 9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전에 복당은 없다”고 선을 그어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회복해 협상할 가능성은 적어졌다.

이로 인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자리는 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더민주가 맡는 데 힘이 실리게 됐다. 벌써 문희상·이석현·정세균 6선 당선인과

박병석·원혜영 5선 당선인이 물밑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지난 16대 국회 후반기(2002년 7월 8일~2004년 5월 29일)의 박관용 의장 이후 14년 만에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야당 출신 의장이 나오면 여야가 나눠 맡는 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1명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에선 심재철(5선)·김정훈

이군현(4선) 당선인이 국회 부의장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박주선 당선인이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을 경우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새누리당이 맡는 형태가 유력시된다.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운영위나 국토교통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이른바 ‘핵심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다시 야당에 양보하는 것이

관례다.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9일까지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해 법정 권한을 지키자는 원칙에만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교문위 등 일부 상임위의 분할 문제, 상임위원 조정 문제 등을 함께 풀어야 해 원 구성 협상은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임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박대통령 의중은?

### 내일 3당 원내대표와 회동...7년 논란 해법 나올지 관심

36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오는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의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 지정에 대해 밝혔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과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 더민주 이개호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정의화 의장과 면담했다.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오는 18일 36주년 5·18 기념식에서 제창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국회의장과 국회 차원의 행동을 요청했다.

이에 정 의장은 “지난해에도 박 대통령에게 기념곡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고 보훈처 등에도 기념곡 지정을 촉구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며 아쉬워한 뒤 “행사에서 1년에 한번 제창하는 문제로 국민이 분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3일

있을 대통령과 원내대표 간 면담에서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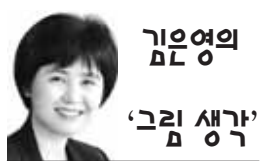
이개호 의원은 국회의장 면담에 앞서 당 비대위 회의에서도 “보훈처가 오는 16일 기념식 식순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행사를 이를 앞두고 발표하는 것은 제창을 막으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은 국민의당과 더민주 원내대표에게 대통령과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를 다뤄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통령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공식 기념식에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제창 방식으로 불렀다. 하지만 2009년부터 공연단의 합창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공식 식순에서도 빠져 식전 공연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녹음과 뒤섞인 빗물은 ‘녹우’ 되어 내리고...



(154) 봄비



김경주 작 '녹우'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 보니/이제는 젖빛 구름도 꽃의 입김도 자취 없고/다만 비둘기 발목만 붉히는 은실 같은 봄비만이/소리도 없이 근심 같이 나리노라...”(변영로 작 ‘봄비’ 중에서)

올 봄에는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린다. 올해, 봄비는 연둣빛 잎새를 툭툭 두드리며 방문하는 ‘은실’ 같기도 하였다가 장맛비 같기도 하고 소란스럽게 휘몰아치는 장대비와도 같아서 다채로운 빗소리의 즐거움을 누리게 했다. 봄비가 미세먼지를 씻어주고 산불예방도 하는 등 경제적 가치도 어마어마하다하니 이 더욱 반갑다.

김경주 작가(1956~ )의 ‘녹우’(2001년 작)는 실비 내리는 물가 버드나무 아래 빨간 우산을 받고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봄비의 서정을 가장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라 꼽고 싶다.

화폭이 무너져 내릴 듯 눈 시린 초록으로 물이 오른 왕버들은 푸른 강에 가닿을 듯 가지마다 잎새를 늘어뜨리면서 보는 이의 손을 잡고 이끄는 듯하다. 풍경화 속 점점 인물로 묘사된 여인은 비 내리는 물가에 쓸쓸하게 앉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녹음과 보색을 이루고 있는 빨간 우산이야말로 화룡점정인 듯 그림 결

을 떠나도 여인의 영상이 오래 남는다. 그림도 글도 경험으로 본다고 영락없이 추억 속 전남대 용지일거라고 확신했던 것과 달리 그림 속 공간은 작가가 오래전 찾았던 화순 능주 영벽정의 풍경을 현장에서 스케치했다가 작업실에 돌아와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화창한 봄날은 봄비 속에 사위어가고 빗물은 녹음과 뒤섞여 푸르른 빗줄기처럼 ‘녹우’되어 내렸을 것이다.

작가는 대학시절 유희를 전공하였고 이후 목판화가로, 민중미술계열 수목화가로 ‘오월의 만화전’을 비롯해 목판화 개인전, 수목화 개인전을 갖는 등 8·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기에 시대적 울림을 주는 작품을 다수 발표해 왔다. 현재 동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교육에 매진하고 있어서인지 작품 발표가 뜸해 아쉽다. 작가의 작품 활동 재개 소식이 기다려진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민의당 3.0

국토교통부

“다른 세입자 구할 때까지 전세금 못 빼줘!”

**전세금 걱정 OUT!**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 받으니까 부담도 OUT!  
제때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공사에서 책임지고 지급하니까 걱정도 OUT!

전세금에 관한 모든 걱정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으로 한번에 해결하세요  
(1억원 기준 대출금액 8천만원인 경우 월 보증료 8,580~15,83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080-800-9001